

유
錫
濬

녀유별이란 엄격한 도덕과 윤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같이 보였다. 물론 그들이 의지적으로서는 봉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간에서 동방예의지국이란 우리민족의 전통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것을 특히 느낀 것은 그들이 사람을 대할 인자나 남녀가 같이 식사하는 좌석에서 많이 볼수 있었고 서울 부산 대구등 수많은 지방에서 절은 남녀가 저이들끼리 앉은것을 별로 보지 못하였고 서울이나 부산거리에서 소위 아벙크가 다니는것은 흔하지 않았다. 물론 리면에서는 여지없는 개방적인자도 있는 모양이고 남녀문제, 특히 풍기 문란한 일들이 있는것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였다. 그것을 나는 말하고싶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된것으로는 느끼지않았다.

◎ 네째로는 그들의 사상과 정신면이었다.

十五年間 복잡한 조국실정이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国内有力紙에紹介된

한일간의 산적한 문제를
민간인 교류로서 풀는 이
해의 해결의 계기를 얻고
저하는 이때에 제일대한국
독교의 활동실정을 제삼자
적 입장에서 시찰하고 귀
국한 한군 그리스도의 교
회 부산지주목사 장성만씨
는 부산일보에 다음과 같
이 보고한바 있다

「도쿄」에는 몇곳의 한
人教會가있다 六十萬제일교
友들의 유일한 정신적인 支
柱노릇을 하고있는 이教會
들은 일제시대에 在京유학
생들의 독립운동의 터전이

되어왔고 현재는 유물론자
들과 대항하는 思想戰에서
집한血鬪를 전개하고있는것
이다 이들 대부분이 제일
대한국독교총회산하에 속하
고있으나 몇교회는 전연 독
립적으로 경영해나가는 곳
도있었다

총회의 俞總무를 만나서
교회운영에 애로가 무엇인
가를 물었더니 첫째는 교
적부족문제라고하였다 현
제 목사가二十四명밖에 없
는데 이數로는 제일교友六
十萬名을상대로 전도하기에
는 확실히부족한것이다 좀

金德成牧師福岡에 赴任

어떤 상태로 이른지 연마지
킨것만은 사실이다. 반공자
상이 놀랄만치 철저한 것
이었다. 나는 남미청년들에
게 그대들은 우리정부가 반
공정책이니 할수없이 반공
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
활고와 취직안으로 허덕이
는 일반청년이나 빈곤한가
운데서 아부하는 학생청년
그대들이 이론종계 선전하
고 살기좋다든 북한을 동
경하고 공산주의를 마을숙
으로 찬성하지 않느냐고 질
문하여보았으나 異口同聲으
로 생활이 곤난하다고 공
산주의 될사람은 하나도 없
다.는것이다. 생활의困苦보다
공산주의 노예가 되고싶지
는 싫다는것이다. 그 반면
에 민족자주자립자치의 정
신 즉 민족주의적 사상이
대단 강함을 느꼈다. 그러
무로 어느때는 그 시야가
너무나 狹少하여 우리가 당
면하고있는 현실을 바로 인
식하지 못할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음을 느꼈다.

이런 이들의 정신적 토
대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
성적인 지도층이 역시 기
독교자상과 정신의 지배와
영향이 많은것을 같이 느
끼는 동시에 금후 우리청

鄭伝道師 予備役에

하셨습니다	수년간	名古屋	교회에서
다음 목회할	수고하시던	정주자	전도사는
의 지시에	七月 말로	名古屋 교회	전도사
로 될 모양	일을	사면했다	八月 한달
김복자님의	을	쉬면서	다음
전공은	종교교	총회산하	교회학
육이신데	장차	증심한	교회학
수일학교를	물으니	전도에	귀중한
	국		

유능하고 교역자가 한인교회발전을 위하여 바치해야 둘째는 한인교회를 앞다시 다음다시 「아우트라인」 요약하여 수설교를 물들것도 실히 교인들을 게 하겠다 회문제인 는 영합리없 담벽에다 을 회발전을	사명감에 그곳에가서 할것같았다 용어문제다 것더니 목사가 한번하고 「만을 하는 복 것은 충의 하 아 사 환 교 당 교 실	정이다 故郷을 잃은 流浪 民과같은 교포들을 위하여 본국의 교회및동포들이 특별한 성원을 보내어 주어 야 비드나루가 지에 메달아 놓았던 교포들의 거문고가 찬란한 음향을 발할것이다 것이다 한가지 더實例를 든다면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 하고 첫마디를 해 놓고 그다음 말이 한국어 로 잘나오지 않으니까 「아 노네」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래서 종종 「하나님 아노네」 하는 말을 되풀이 하는 웃 지못할 「넌센스」 가 벌어 지 는 때 한민족 이 면서 한국 어 를 모르 는 비 국 여 기 에 미 족 魂의 喪失 이라 는 증 대 하 는 것 이 다 결과를 가져 오 게 되 는 것 이 다
--	---	--

년남녀가 회망하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하면 조국이 완
 전통일되며 참된 민주주의
 국가, 자유를형유하는 국가
 사회가 될까하는바 전력을
 바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
 다 그 증거로는 지난 五
 〇一六군사혁명이 확실히 증
 명하고 있지않는가
 마지막으로 본국에 있는 청
 년들은 재일동포 남매제군
 에게 조국재건에 이바지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큰것
 을 알리면서 나의 소감의
 일단을 마치는바이다

어를 능숙히 활용할수 없
 기 때문에 직접적 전도에
 서 물러나려고 결심했습니
 다 그러나 말은바 전도사
 업에 하직하려는 생각은
 없읍니다 우리 총회의 선
 교사업을 측면으로 협력하
 는 부분의 일을 한가지하
 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 실태조사와 그 주변
 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상
 세히 조사 연구하여 총회
 가 당면한 교포와 교인들
 의 종교교육적활동에 이바
 지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교포들에
 내가「도교」에 滯留하고있
 는동안에 몇곳의 한인교회
 에가서 설교도하고 교회지
 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였는데 일본전토에 불과
 三十三個所の 교회와 三
 五個所에 전도소, 그리고 三
 千名(年長 五百名, 幼年
 五百名)의 교인수를 들고
 서 異國, 異民族들에서 학
 대와 멀리서 받고있는 겨
 레들에게 참소망을 보여주
 고자 노력하고있는 이분들
 의 눈물겨운 활동에 경의
 를 표하지 않을수없다
 앞으로 재일교로교회청년
 들과 본국교회의 청년들과
 의 친선방문이 이루어졌으
 면 한다

(訪問團日誌 계속)

사회양역승 y m c A 옥문 석씨와 면담

五日, 부산에서 서울로 향발
오후 정인수牧사와 예정에 대한 재점투

경도사무소에서 서신을 정리 사무연락회답 정牧사 이신덕선생의 안내로 정히대학방문

六、외무부를방문 전영택牧사의안내로 다시감리교 방문 강상우 안성진牧사 래방 창덕궁과창경원을구경 정牧사승의교에서설교

七、교회장금로도착 교계 대표들과공함に出迎 영남여관에서 오정 유三著사 무라함 오전장노초대로점심

八、감리교김종필감독을방문간담 성서공회임영빈牧사안내로 한국성서출판사 영등을구경 정훈장노부처의초대를 받음 민국일보사방문 y m c A에서열린 신학자회에참석

九、영락교회에서 오牧사설교 정牧사성광교회에서설교 (二百名) 유씨회에서보고인사 三人이 새문안교회에서예배

十、외무부차관 여권課각기관방문 밤 기독교회김준배총무초대를 받음 정유한남노회에서 보고강연 성경교본부방문

十一、정유관문접견학

十二、교회장 y m c A二年대회에참석 성경교회총회시작 성남노회에서 밤에 재일교포실정보고

十三、성결교회에참석 오회장인사 한국신학대학을방문

十三、각계인사들과면담 정오 연세대학교에서예배고종장과회담 감리교감독과 감리교여선교대회에참석 최고감독들의초대로점심 공식회담 n c c 총무

외회담 밤 기독교박물관
장 김양선 목사 맥을 방문
十四, 예장총회 신학교 방문
설교 점심은 선명교회 대
를 받고 그기관을 방문 오
후二時 성결교회 추무와 그
의 목사님들과 회담 밤은 오
전장노매을 방문 四時半 영
락교회 장년면회 초대로 간
담회
十五, 안영준 목사 부인과 면
담 예장총회 대표와 기장
총회 대표들과 각각 공식 회
담 서울 여자대학 입학식에
참석 각계 인사들에 방한
인사 오회장 정옥사 유
석준 김석문 장노 四時 회의
유원근 군을 사 무책임자로 정
하자는 토의 복음신문 발행
기타 작토의
十六, 오 유 남대문교회에
서 예배 정옥사는 동성교
회설교 오후二時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NCC 주최로 보
고양면회 정동교회에서 장
연 밤은 용산교회서 설교
十七, 외무부 김용식 차관
통상국장 장준희씨 여권과
장진갑 씨등을 방문 문기
성옥사 여권서류를 제출
구세군 본부 방문 성결교회
간부들과 회담 각과하여 전
도회 대표들과 정식 회담 (y
m C A에서)
十八, 오 정 양대표는 압리
교 신학교 방문 원근군과 나
는 고려대학에서 열린 四,
一九기년비제막식에 참석
점심은 김대보 장노 초대로
오후二時半 윤대통령을 방문
약 四〇분間 오담 김태열에
대한 공요문을 발표
一九, 四, 一九혁명기념식
행사를 구경 원근초대로 점
심 받은 동안교회 방문
정옥사 안국동교회서 설교
二〇, 정 유 사무라 합 일
행이 이화대학을 방문 총
장 및 여러 직원들과 진도자
과 견견으로 상의 오후는 출
발 준비
(四而下단에 계속)

東京
IK
Y
C

至ったのです。此処に至りますと最早、敵が善を行ってもそれは敵の善ではあっても普遍的善を行ったものとして評價されません。又敵に対しては善を行うに当っても民族意識を分母とする善であって、決して無条件的に万人が範とすべき善はおかしくって行えなくなるのです。民族意識で割られる行のみが良い行、勇気のある徳、公共への奉仕として称讃されます。言い換えますと民族意識に妥当するものだけが真理なのであります。この様にして一つの規範出来上りました。韓民族にとっては凡ゆる真理には必ず一つの条件がつくのだと。マルキシズムに於いて敵を意識しない真理が承服されないのと同じの気風が醸成されたのです。文化も道徳も科学もスポーツえが必ず頭に民族という形容詞を冠されるのです。少くとも日本民族を意識する世界では普遍的理性はあり得ない。良心も日本人に係わる限り民族的自覚なる絶対者の

トムおじさんの小屋の著者のこと

きり訴えているからです。旧約聖書の中にでてくるヨブのように正しい黒人どれいトムがたどった、常識ではとうてい考えられない悲惨な生活を軸（じく）に回転する。当時のアメリカ南部諸州のどれい生活についてのこまかい描写は、読む人をして最後までひきつけ、巻をおかしめないほどの迫真力をも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ここでは、「トムおじさんの小屋」を中心として、ストウ夫人のことについて書いてみようと思います。

彼女は、ヨイマン・ピーチャーというカルヴィン派の牧師のむすめとして、一八一一年六月十四日、コネティカッ

監視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様にして当初、帝國主義政策に対する自己保存の爲の抵抗獨立運動であつた民族的自覺の動きは日本人對人との全面的對立抗争に拡張され遂には個人對個人の交際至つてまで民族主義はすべての決意を定める公式的規範として君臨するのです。「眼には眼を齒には齒を」の復讐の倫理が今やおよそ日本人であれば誰彼なしに痛めつけてやり度くなるのですから、善意の日本人に対しては加害主義の倫理になつて狂氣と見境がつかなくなるのです。私は以上多少極端な表現をしたかも知れませんが私達が取り組まざるを得ない民族的自覺の内に斯る激烈なものが潜在している事實は何人も否定出来ません。キリスト者の中にも斬る民族的自覺に郷愁を抱き酔酔したり神秘的な崇敬を捧げる人が非常に多いことを残念ながら認める外ありません。キリスト教会が國語や國史の教育をすることを宛もキリ

ト教会の文化的使命であるかの如く考えている方方の胸りにはこの様な民族意識の亡霊が生き残ってはしないでしょうか。二世や三世の中には日本が自分の祖国であればどんなに良いかと小さな胸を痛めている者が非常に多い事実を知っている。これを指して祖国喪失の姿なりとする人達にこの情純な童心の爪の垢でも煎じて飲ませたくなる。と申しますのは、斯る民族意識の持主たちが國語教育国史教育を行う時そのまく種が如何に毒に満ちたものであるかを思つてみなさい。又自分が生れた土地を自分が祖国としたくなる感情程素直で自然で神の心に通るものはない筈ではありませんか。それが自然に映らず屈辱に映つたり憐れに映つたりするのは大人たちの意識が何物かに侵されていることの端的な証明になるのです。話をもっと進めましょう。

國語常用の唱導者の愛國主義に敬意を表することは否かでありませんがその非人道的思

考には呆れざるを得ません。一人の青年が何処を自国として扱ふかは今日の在日韓国人の子弟の場合輕輕く断定出来るものではないし彼等が今日の様な民族的自覺の境遇の中で國語を解することが果してどれだけ彼等の人間形成に利益を来らすかを計ることも極めて深い熟考を要する問題であります。それは暫らく措くとして、キリスト者は神に對する使命によって生きる者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的使命によって彼は自由に世のキ会を扱ひ取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青年達が日本に留つてその生の使命を果たすことを神によって促される領域には先輩は勿論両親も干渉を許されない筈である。彼はその使命の自覺によって國語常用を選択することも出来又これを忘れることも許されるのであります。一体個人の魂がその使命を自覺するのは彼の世界認識とその人格の神との交際によつてきまるものであるのです。

ト州リッチフィールドに生まれ、一八九六年七月一日、同じ州のハートフォードにおいてその生涯を閉じました。二十五才の時、父が校長をしていたオハイオ州シンシナティの郊外にあるレーン神学校の教授であったカルヴィン・エリス・ストウ氏と結婚し、六人というたくさんの子供にめぐまれました。彼女はなによりもまず、家庭の主婦としてすぐれた資質を示し、「トムおじさんの小屋」を書いたところも、実は台所のテーブルの上とか片すみにおかれた大きな箱の上だったのです。一家の主婦として、育児、すいせんたく、買物など、目のまわらうようないそがしい生活の中で、彼女の目はいつも内に向けられていました。しかし彼女の目を外に向けるキ縁となった大事件が家庭内で起て

りました。それは、その当時シンシナティの町に流行したコレラのため一番末のチャールズが彼女の手からうばわれたことです。彼女ははじめて子を失った母親の悲しみと苦しみを味わい、それまでの幸福な生活、母親としての誇りも特権も、以前のように価値あるものではなくなっていました。彼女は目の前が真っくらに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した。「トムおじさんの小屋」の中に、子供をどれい商人の乙にうばわれてなげき悲しむ黒人の母親の物語がいくつも出てきますが、それはこの時の自分の悲しみが心の底に残っていたからでしょう。この事件を転機に、自分の家庭のことにはばかりかまけていたと思ったストウ夫人は、世の中にもっと悲惨な境遇の中であえいでいる人たちが

たくさんあることに目をひられ、どれい制度の廃止の為にたたか決心をしました。マその行動の結果が、「とむおじさんの小屋」となってあらわれ、その書物が出版された一八五二年から数えて十年目の一八六一年、時の大統領エイブラハム・リンカーンによって南北戦争が行われることになり、ついにどれい制度は制度として撤廃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戦争の最中ストウ夫人はワシントンに出て、大統領に面会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その時、リンカーンはこう申しました。「おお、ストウ夫人ですか。よくいらっしやいました。あなたが、この大戦争をまき起こした本をお書きになった方ですね」と。

祈りながら祖国の現状を我々も訴えよう

대한예수교장노회의지선교회(外地宣敎會) 회장 이태준목사는 재일본 한인 전도를 위하여 강상우(康相禹) 목사님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고해 왔다

재일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만 하심을 앙축하나다 취백 경교지사는 귀하가 전

번에 귀국시에 요청하신 대로 재일교포 진도목사 학분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본국 교회에서 교역중인 장성우목사님을 파견코저하오니 파견되는 대로 귀종회 산하 교회 전도지대에 배치하시여 활동케 하시기를 앙망하나다

一九六一年六・二七

총리대리인 박정호

행이 조국을 방문했을 때 조 국내 각계 각종 각 교파 단체본부 학교책임 말으신 분들과 지체교회 여러교우 들의 극진하신 환영과 접 대를 하여 주셨사오매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한편 우리들의 조국방문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교 재 일본 대한기독교총회의 호 소문과 방문의 여정까지 제 재 공고 방송해주신 기독교 공보 크리스찬 기독교시보 기 독교방송지를 비롯한 각 인 론 판계자 여러분의 협력 과 원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이다 구제적으로 우리의 호소 요청을 받아 적극 협	해주시 단체와 신학교 국가 여러분의 후의와 귀 임후 우리총회산하의 각 교 회와 판계자들에게 보고하 여 기쁨을 함께했읍니다 우리는 조국교회의 두터 운 배려에 책임과 사명을 새로히하며 국의 일본땅에 서의 복음전도에 매진할것 을 약속하여 격려에 보답 하려하나이다 국의 일본땅에 우거 유 리하는 六十余万교포에 대 한 복음운동체를 잊지 않 으시고 계속 후원해주심을 이같은 紙面으로나마 다시 감사를 드리나이다 一九六一年八月十五日 재일대한기독교총회 오윤태
---	---